

#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 예술 담는다

### 시, 3억6500만원 투입 지역예술가들 참여 '지붕 없는 미술관' 제작키로 올해 9곳, 기존 승강장보다 2배 가량 긴 특색있는 승강장으로 변경 예정

시설이 낡고 좁아 이용하기 불편했던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이 '천년의 빛'과 숨을 담은 예술이 있는 승강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낙후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쾌적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3억6,500만원을 투입해 9개 승강장을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술 있는 승강장 제작은 전주시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과 예술관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승강장 디자인 컨셉은 전주시의 특별함을

담은 '천년의 빛', 예술부문에는 선정 위치별 특성을 담은 '천년의 숨'을 주제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 지역 예술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해 공미술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추진되는 9개 승강장은 대우빌딩 승강장과 대자인병원 승강장, 동물원 승강장, 국민은행 승강장, 대우빌딩 승강장, 전주시청 승강장 등 모두 9개소로, 기존 표준형 승강장보다 약 2배가량 긴 8~11m(국민은행 18m, 1일 이용객 3400명)의 길이로 제작된다.

시는 오는 6월 말일까지 승강장 제작과 토목공사 착수 및 완료 목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승강장 주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휠체어 승차 및 대기 공간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 승강장 관리를 위해 전기 공사를 재설계해 승강장 내부에 버스카드 잔액체크기와 CCTV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린대로에 위치한 전주시청과 대우빌딩 승강장의 경우 활용빈도가 낮은 버스베이를 제거하고 인도가 확장될 예정이다.

## 네이버, “아웃링크 도입’ 적극 추진”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의 여론 조작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일 오전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제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고 네이버는 해당 권수와 독자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네이버 뉴스에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표는 "아웃링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전체로 바탕의 비즈니스 계약,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언론사들의 엇갈리는 의견 등으로 일괄적인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지만, 언론사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네이버는 아웃링크 도입시 우려되는 낚시성 광고나 선정적 광고, 약성

코드 감염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아웃링크/인링크 도입 언론사를 가려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대표는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소수의 기사에 3000만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뉴스 소비 동선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올 3분기 내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고 '검색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실시간급상승검색어'도 더 이상 첫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한 대표는 댓글 어뷰징 방지를 위한 댓글 정책과 시스템 개편에 대한 추가 방안도 공개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 기간까지 정치/선거기사 댓글은 최신 순으로만 정렬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계정(아이디) 사용에 대한 이상 패턴을 더욱 면밀하게 감지해 이상 징후에 대한 계정 보호조치 등도 취할 예정이다.

### 전국 최초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 본격화

####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 주민들과 주민참여 협약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시범마을 주민협의체가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가 서학동 예술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버려지는 빛물을 재이용하는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9일 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서학예술촌 빛물이용 시범마을 주민협의체(회장 강공수)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서학예술촌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학동 예술마을 주민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빛물이용 시범마을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시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시와 주민협의체는 빛물시설의 자율적 이용과 유지관리 실

현을 도모하고, 빛물을 테마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분담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부안해경, 봄 성수기 낚시배 안전지해 행위 특별단속

'봄 성수기 낚시배 이용객과 안전 수요가 급증하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안전한 낚시문화정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지해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TV 방송 등 다중언론매체의 영향으로 격조, 위도 지역을 찾는 낚시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봄철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 오는 11일까지 계도 후, 12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배는 10톤 미만 소형 선박임에도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여 파도가 높은 공해상과 원거리 조업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수사·경비합정·파출소장 등 전 가용인력을 동원한 일제 단속도 실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출장소가 없는 항포구 등 취약개소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거짓)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부안해양경찰서 인제주 해양안전과장은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배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 드루킹 일당 댓글작업 수사 확대

### 대선 전후 기사 URL 9만여건 확보

경찰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 씨 일당의 댓글 작업 정황이 발견된 대선 전후 기사 URL(링크주소) 9만여건을 확보해 댓글 순위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 등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작업한 기사 URL 9만여건의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김모씨(필명 '초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암호가 걸린 보안 USB를 발견, 압수하려 했으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USB에 저장된 파일의 탐색 및 추출 과정을 김씨가 임의하거나 참여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7일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해당 USB를 확보한 것이다.

당초 드루킹 최측근으로 알려진 '초보'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변호사 선임 후 출석하겠다고 해 지난 7일 피의자를 상대로 USB 전체 파일의 탐색 및 추출 과정에 참여시키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추출했다"며 "기사

에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여부가 있다고는 앞으로 확인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기사 링크 7만1000여건은 2017년 5월 말부터 2018년 3월 말 사이 기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만9000여건의 기사링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선 전 기간에도 드루킹의 주도 하에 조직적인 댓글 여론 조작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USB와 별도로 경공모 회원들의 단체대화방 2곳에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4월14일부터 2018년 2월27일까지 기사링크 973건을 확보했으며, 그중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14일~5월9일 기간에는 기사링크 624건을 발견, 댓글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사 링크 1만9000건에 대한 자료보존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사 링크 7만여건을 드루킹이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속수감 이후 경찰 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 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완주 장애인단체장 보조금 횡령 혐의 경찰 조사

완주의 한 장애인단체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완주 한 장애인단체 전 회장 A씨는 자신이 단체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과 2017년 완주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위는 해당 단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고,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횡령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A씨는 "횡령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

다.

하지만 최근 자신이 빼돌린 4000여만원을 단체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수법에 비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A씨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